

11월 17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1월 1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G20 정상회담 금융위기 국제 공조 확인	G20 정상회담은 현재의 국제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를 재차 확인하고, 공동의 국제 금융개혁안을 마련기로 함. 금융개혁안은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 규제 개선,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 국제 협력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5개의 원칙 아래 47개 중단기 실천과제로 구성되며 3개국으로 구성된 의장국단이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절차등을 만들게 됨
‘소비가 죽었다’ 뉴욕 급락 [다우: 8,497.31pt (-3.83%)	10월 소매판매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소식이 경기후퇴(recession) 우려를 고조시켜며 투자심리를 냉각시켰고, 세계 최대 휴대폰업체인 노키아의 휴대폰 수요 감소 전망과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대규모 감원, 유럽 경제의 공식적인 후퇴 국면 진입 소식도 악재로 작용하여 뉴욕증시는 급락하였음.
10월 소매판매 사상 최악	미국의 소비심리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 등으로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상무부는 10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2.8% 급감했다고 밝혔고, 이는 지난 199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임.
노키아 악재	‘노키아 악재’로 기술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음. 노키아는 올해 전세계 휴대폰 선적량 예상치를 종전의 12억 6,000만개에서 12억 4,000만개로 하향 조정하였고 내년에는 이 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여 11% 급락 보였음.
버냉키, 추가 금리인하 시사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세계 중앙은행들이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음.
라이보, 이틀 연속 상승	달러 유동성을 가늠하는 라이보(런던은행간금리)는 이틀 연속 상승했음. 이날 영국은행연합회(BBA)에 따르면 3개월 라이보는 2.24%로 전일대비 9bp 올랐음.
10월 수입물가 20년래 최대 하락	미국의 10월 수입물가는 2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며 전월대비 4.7% 하락을 기록, 1988년 이후 최대 하락률을 보였음.
국제유가 하락 [WTI: \$57.04 (-2.06%)	미국 경제지표 악화로 인한 경기후퇴와 수요 둔화 우려가 고조되며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제목	주요 내용
건설업계 구조조정 막 오르나	◆ G20 정상회담 국제 공조 노력 확인 이번주 건설 살생부 작업 급물살 PF전수조사 발표때는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논의도 예상
日 국내 車생산, 5년래 첫 감소	니혼케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08 회계연도 토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8대 자동차업체의 국내 승용차 생산대수는 970만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 이는 전년 대비 7% 줄어든 수준으로 일본의 국내 승용차 생산은 2003 회계연도 이후 줄곧 증가세를 유지.
C&그룹, 건설, 레저 상장사 매각 추진	C&그룹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주력 핵심 사업분야인 C&우방과 레저부문 C&우방랜드까지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기로 함
李대통령 "G20회의 예상보다 성공적"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G20 금융정상회의를 마친 뒤 "G20 회의가 예상보다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한국이 1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중대 과제가 다뤄진 국제무대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내년 4월까지 개최될 제2차 G20 회의에 제출할 안건을 만드는 의장국단(한국, 브라질, 영국)에 한국이 포함됐다"고 언급.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